

특별기획



정읍시보건소 26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시가동 표본 23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표본설계를 통해 시가동 7통과 8통, 9통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보건소는 "가구원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된 표본가구의 주민 23가구/68명은 시가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검진 및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어 1주일 후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본격적으로 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표본 23가구는 가구선정 통지서가 배부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에 사전교육을 통해 조사시간을 정했다.

조사내용은 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등)과 건강 설문조사(흡연, 음주, 신체활동, 건강 상태, 의료이용 등), 영양조사(식습관,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식품의 섭취빈도) 등이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관련 의식 및 행동, 식품·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여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설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본가구 선정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임사회 3일간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사회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알차게 진행한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중 의원의 "도심 속 시민휴식처 성황산 둘레길을 조성합시다"와 정병선 의원의 "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생명보존과 건강한 삶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진다.

이에 이어 215회 임사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 12건의 조례안, 건의안 및 공무제안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및 안전심사를 처리한 뒤 215회 임사회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산업·농공단지 정화활동

김제시 투자유치과에서는 다가오는 추석과 김제지평선축제를 대비하여 관내 산업·농공단지 대하여 제조작업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슬땀을 흘렸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작업능률을 고려해 오전시간에 진행된 이번 제조작업은 단지별 공단협의회 회장 및 위원 등 12여명과 예초기 4대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으며, 단지내 인근 잡초와 낱물 식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주변 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김제시기업인협과 농공단지 협의회가 연계로 김제시 공단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 함께 가꾸어 가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쟁점사업 예산반영 총력

김생기 시장 중앙부처·국회 방문...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 등 건의

김생기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의원(예결특위 위원장), 조정태 국회의원(기재위원),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2017년 국가예산확보 쟁점 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펼쳐온 김시장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쟁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4개 쟁점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상인체합교육관 시설 확충사업,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

립 학술연구교류센터 건립으로, 총사업비는 918억원 2017년도 요구액은 368억원이다.

김 시장은 이들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민족운동과 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2004. 3.)을 근거로 추진한 사업이다"며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규모 축소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또 "화학연구원 전북분원은 정부와 정읍시가 협약(MOU)을 체결(2011. 2.)한 물품 설립 승인(2011. 6.)까지 한 약속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정책 신뢰회복과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과학 육성을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합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쟁점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정기국회까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테마열차는 축제기간 중 10월 1일 06:30분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에 정차하며 3800여 명이 탑승 가능하다. 금번 테마열차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에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은 주관 여행사인 코레일투어(http://www.korailtour.com), 이레일투어(http://www.erailltour.com)에 접속해 승차예약을 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점은 해당 여행사(☎02-323-7805)로 문의하면 된다.

여행사와 협업 지평선축제 테마열차 운영

코레일, 수도권 관광객 편의위해 서울-김제역간 10월 1일 운행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벚꽃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코레일 및 유명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서울역과 김제역간 테마열차를 운행한다.

김제지평선축제 테마열차 운행은 수도권의 김제지평선축제 방문 수요에 대한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김제시가 코레일(수도권 서부본부)과 유명 철도여행 여행사인 (주)코레일투어 및 (주)이레일투어의 협업을 통해 사전

정되었다. 이번 테마열차는 축제기간 중 10월 1일 서울역을 출발(06:30분)하여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에 정차하며 3800여 명이 탑승 가능하다.

김제역 도착 후에는 전용 직통버스를 통해 축제장에 도착하여 6개 분야 8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평선축제를 관람한 후 미륵산양의 도랑인 금산사 산사체험 등을 거쳐 김제역을 출발(18:30분)하여 서울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금번 테마열차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에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은 주관 여행사인 코레일투어

(http://www.korailtour.com), 이레일투어(http://www.erailltour.com)에 접속해 승차예약을 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점은 해당 여행사(☎02-323-7805)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이번 테마열차를 운행해 통해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한층 다가서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축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교통체계 개선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변모하여 가을에는 김제지평선축제를 방문하여 금단풍의 따뜻한 정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양경찰 공무원' 하반기170명 채용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의 올 하반기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인원은 3개 분야 170명으로 공정한 객관적으로 선발한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공제 순경(남) 85명, 순경(여) 15명 ▲북인(구조/특공) 순경 50명 ▲중국어 순경

(남) 18명, 순경(여) 2명 등 총 170명이다. 원서접수는 22일부터 9월 5일까지며, 채용분야별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거쳐 적성검사와 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오는 12월 21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go.kr)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전남 여수시 소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신입 경찰관

교육을 이수한 후 순경으로 임용, 전국의 일선 해양경비안전서로 배치된다.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수호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에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관련 내용은 국민안전처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i.kcg.go.kr) 및 교육채용팀(☎ 044-204-7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자율방범대와 협력치안 방안 모색

샘고을시장 주택밀집골목, 남초교 주변 주택가 등 순찰강화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지구대(대장 김용철)에서는 6개 자율방범대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샘고을시장 정읍시공원, 천변산책로 등 야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에서 지역 주민들이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샘고을시장 주택밀집 골목, 정읍여고 앞 남초교 주변 주택가 정읍시공원 산책로 등을 순찰강화 구역으로 선정해

도보순찰을 병행 꼼꼼히 살피는 누비기식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동자율방범대대장 김상원씨는

"박연한 순찰보다 관할 지구대와 협조해 순찰노선을 지정하고 맞춤형 순찰로 관내 주민들이 평온히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동지구대에서는 이달 초 산하 6개 자율방범대에 형광조끼, 후레쉬링 랜턴 등을 지급하고 야간 순찰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故 조성근 선생 유족, 장학기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에 5백만원 전달

고(故) 조성근(한양조씨 종친회장) 선생 유족이 부친상 조의금 5백만원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23일 전 김제경찰서장 조용식씨를 비롯한 고(故) 조성근 선생 유족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조의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기탁금은 김제시 봉남면 송내마을 출신인 조용순(68,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본부장), 조용식(57,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조장희(51, 강남빌딩 대표) 등 4형제의 부친상 조의금으로 조의를 표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의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기탁

하게 된 것이다. 4형제는 지난해 모친상 때에도 장학금 5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유족대표 조장희씨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의를 표해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며 "그것이 아버님의 유지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기탁 배경을 밝히고 "허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김제지역의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금은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들은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00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의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게 된 것이다. 4형제는 지난해 모친상 때에도 장학금 5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유족대표 조장희씨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의를 표해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며 "그것이 아버님의 유지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기탁 배경을 밝히고 "허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김제지역의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대상 장수사진 촬영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오고 있다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경철)가 사랑을 나누는 움직이는 행복사진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두무동 경로당에서 13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부터 지역특색사업으로 관내 26개 경로당에서 7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병장수의 소망을 담은 사랑을 나누는 움직이는 행복사진관 무병장수 어른신 장수사진 제작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움직이는 행복사진관은 성덕면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인소문이 퍼지면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의 독거노인을 촬영했으며, 당초 목표였던 170명보다 60여명 더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백세대로 급속히 진행해 가고 있는 요즘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에 동참하여 계속해서 하반기 움직이는 행복사진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은 숲 가꾸기 사업은 가지치기, 슈이베기 등 간벌작업을 통해 생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숲을 조성하게 된다.

부안군, 건강한 산림 조성 발벗고 나서

200ha 규모 3억1000만원 투입

부안군이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건강한 산림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200ha 규모의 산림에 총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큰나무가꾸기 사업 등 건강한 산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가치 향상 및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입목이 과밀해 부피생장이 늦어지고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취약한 인공조림지 또는 천연림이다.

더욱이 군은 숲 가꾸기 사업은 가지치기, 슈이베기 등 간벌작업을 통해 생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며 환경적인 숲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부안읍 등 200ha의 산림에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산촌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으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과 산림기술 교육을 통한 산림분야 직업인 양성 등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고용과 소득효과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을 확대 추진해 부안군 산림의 리모델링과 융복합을 통한 산림의 가치창가가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올바른 112신고 주민 홍보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식)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가 올바른 112신고 고문과 정착을 하려고 관내 관공서, 공공장소 등을 방문하여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섰다.

서림 지구대는 관내 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110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담·민원 전화"이며, 112는 긴급 신고번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계자를 상대로 홍보와 전파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